

주거 서비스 제공 가능성에 따른 도시 노인의 주거 선호 변화에 관한 연구

Preferred Living Arrangement of the Elderly referring to the possible provision of Housing services

이 연 숙* 김 미 선** 이 정 화***
Lee, Yeunsook Kim, Mi Sun Lee, Jung Wha

Abstract

Recently, there had been considerable changes in our society in terms of the level where elderly people can experience the potential in their quality of life and demand for better life. Therefore, new alternative for elderly housing responding the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demand of the contemporary elderly. For this, there needs to find out preference of the elderly on their living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elderly preference on living arrangement via small group workshop, to propose a sustainable housing option. The workshop allowed step by step responses along with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living arrangement possibility. The findings were, most participants wanted to 'age in place' when they are still healthy. And some in care facility is inferior later life period. For later cases, when they were given information on various elderly housing, their preference changed from mostly elderly facility type to ordinary housing. They were intended to stay in current housing when convenient services and digital technology services are available in their house.

키워드: 노인, 노인환경, 주거 선호, 소집단 워크샵

Keywords: elderly, living arrangement, preference, small group workshop method

1. 서 론

1.1 연구배경

노인은 노화가 일어나면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러한 노화현상으로 인해 노인은 기존의 거주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삶을 영위해나가는 데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는다. 물리적 제반환경이 노화로 인한 기능 저하를 지원하지 못할 경우 개인의 삶을 불안하게 할뿐 아니라 커뮤니티의 활력을 떨어뜨림으로써 사회의 지속적 가치를 저하시키게 된다. 활발한 공동체를 유지시키기 위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이러한 사회적 긴장감은 사회구성원의 심리적 건강을 저하시키고 불안을 야기하며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노인과 사회구성원들을 위한 적절한 주거환경 형성은 고령화 사회 구성원들의 긴장감을 덜어주고, 나아가 공동체가 활발히 지속가능한 가치를 유지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적절한 주거를 개발하는데 다양한 접근이 포용되어야 한다. 설계자의 입장에서 보다 바람직한 합리

적인 안을 제안할 수 있고, 또 거주자의 입장에서 계획에 필요한 요구를 파악하는데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 후자의 경우 대표적인 것이 주거 선호에 관한 연구이다. 사실 노인이 노후의 삶을 어떻게 보내느냐하는 것은 노인이 스스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주거를 선호하는지와 연관이 있다. 따라서 노인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적응기능의 감퇴를 보완해줄 수 있는 주거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주거 단위가 모여서 이루어진 커뮤니티로까지 확장되어서 그것이 지속가능한 주거환경과 사회로 연계된다.

또한 지금까지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을 위한 주거선호에 대한 연구가 학계에서 진행되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예비 노인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았고, 노인의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수량적 연구방법으로 진행되어서 노인의 지속적인 삶을 지원해주기 위한 주거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며 노후 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의 인식 없이 또는 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채 막연히 질문한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노인이 다양한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지식이 부족하여 미래 지향적인 질문을 하기에는 제약이 많았다. 그러나 점차 노인의 수명이 길어지고 노후대비 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글로벌 정보화 사회, 시민사회로 인해 많이 알고

* 주저자,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석사과정
(redistuo@daum.net)

***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석사과정

표현하는 능력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그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주거 대안이 필요하며, 이에 앞서 노인이 선호하는 주거의 특성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사회의 빠른 변화와 더불어 노인 스스로도 삶의 변화 가능성을 느끼고, 또 그들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로 발전하였다. 이와 더불어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여 60세 이상의 노인들도 과거의 노인과 다른 젊은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노년층이 자발적으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연령으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주거선호를 연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하다.

1.2 연구목적과 의의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소집단 워크샵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주거 서비스 제공에 따른 국내 도심지 거주 노인의 주거 선호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주거서비스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노인들의 내면에 있는 주거 요구를 이끌어내어 이들의 선호 변화 및 미래 계획에 도움이 되는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표는 첫째로 선행연구를 통해 현재까지 노인들이 선호하는 주거환경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로, 소집단 워크샵을 실시하여 노인 주거 유형의 다양성을 소개한 후 노인들의 주거 선호 특성 및 그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노인들이 기존에 알고 있지 못했던 노인 주거 유형을 인식하고, 미래의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거에 대한 창의적 정보를 제공받아 노인들이 그들 스스로 주거환경에 대한 계획과 선호를 자유롭게 구상해 보게 할 수 있다는 데 그 독창성이 있다.

1.3 용어정의

본 연구에서 주거서비스는 물리적인 제반 환경과 그 속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의미한다. 물리적인 측면은 주거 유형, 거주 지역, 주택 규모, 동거형태 등으로 정의하였고, 생활 서비스 측면은 노인용 주택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생활 제공 프로그램과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정의하였다.

2. 문헌고찰

2.1 노년기 상황 변인

노년기 상황은 일반적으로 노인의 특징을 분류할 때 사용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준으로 나눌 수 있으며, 대표적 노후 상황별 변인은 <표1과> 같다. 이 중에서 신체적 기준에 의한 분류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연령에 의한 구분이다. 고성룡(1990)은 노년기를 연령에 따라 전기(55~65세), 중기(66~75세), 후기(76세 이후)인 3단계¹⁾로 나누었다. 그러나 이연숙, 오찬옥(1992)은 이러한 연령

에 따른 구분이 노인의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노년기의 상황적 특성에 따라 노인의 주거에 대한 욕구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노년기의 상황적 특성을 부부동거상태와 건강상태에 따라 4가지 상황으로 분류하였다. 광인숙(1998)은 노인의 취업여부와 건강상태에 따라 4가지 상태로 노년기를 나누었으며, 이태경(1995)은 노인의 건강상태와 부부동거상태, 경제적 상태에 따라 노년기 상황을 8가지로 나누었다. 이와 같이 노년기는 하나로 통합하여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개인적인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현상을 가지고 있다.²⁾ 이러한 상황변인은 노인주택에 대한 요구 및 선호를 조사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막연하게 노후를 기간으로 정하여 조사를 한 연구들이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표 1. 대표적 노후 상황별 변인

		상황구분	설명
노년기의 나이에 따른 3단계, 고성룡 (1990)	노인전기	55-65세 사이에, 노화를 자극하고 정년퇴직 등으로 인해 사회, 환경적 변화가 일어나 주거환경이 전환되는 시기	
	노인중기	66-75세 사이에, 노인임을 자각하고 노인사회의 중심으로 각종 노인시설의 주체가 되며 비교적 활동이 활발한 시기	
	노인후기	76세 이후로 노화가 상당히 진전되고 심신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어 일반적인 노인병 증세가 나타나며 이동이 불편해져서 환경에의 적응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일상생활에 타인의 보조가 요구되는 시기	
노년기 4가지 상황설정, 이연숙, 오찬옥 (1992)	부부동거/ 건강시	부부가 함께 살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 상황	
	부부동거/ 건강약화시	부부가 함께 살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할 정도로 건강이 약화된 상황	
	혼자거주/ 건강시	이혼, 배우자 사망 등으로 인해 혼자 살면서 건강한 상황	
	혼자거주/ 건강약화시	혼자 살면서 건강이 약화된 경우	

2.2 노후 주거환경 선호에 관한 선행 연구 고찰

노후의 주거 지역에 대한 선호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도시 근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도시근교의 경우 도심지의 교통 혼잡, 범죄, 환경오염 등에서 벗어나려는 원심력과 도시가 지닌 편의시설, 의료시설을 편하게 이용하려는 욕구에 따른 것³⁾이다. 그러나 노후상황중, 건강이 나빠진 경우나 혼자 거주하게 되는 경우 도심지 내로 이동하고자하는 요구가 있었다. 이는 도시근교보다 도심지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기회가 많아지고 주변 편의 시설의 이용이 용이해질 뿐 아니라 사건 발생 시 해결이 신속하고 용이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⁴⁾이다.

- 1) 고성룡(1990). 노인을 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계획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 권오정(2005), 예비노인층의 실버타운에 대한 선호경향,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3) 오찬옥, 이연숙(1992), 노년기 주거욕구 파악을 위한 하위상황 설정기준, 한국노년학회 학회지
- 4) 오찬옥, 이연숙(1993). 노년기의 상황설정에 따른 노인주거특성에 대한 선호.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주거 형태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아파트 형태와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가 높다고 발표된 것이 많다.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은 주택관리나 각종 서비스 제공의 용이함 등 아파트 생활만의 편리함을 상당히 중시하기 때문이며,⁵⁾ 반면에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의 경우는 주택에 대한 소유의식⁴⁾과 정원에 대한 선호 때문이라고 해석되었다.

선행연구결과에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시설에 거주하는 것 보다는 현재 거주 형태와 비슷한 일반 주택 형태를 선호하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현재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는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살기 좋게 고쳐 한 집에서 오래 산다⁶⁾는 생애주택의 개념(Frank, 2002; 이연숙, 2003)은 노인들의 주택에 대한 애착심과 관련이 있다.

선호하는 노후 주택 규모는 부부동거시 20~30평형대를, 혼자 거주시 10~15평형대였고, 대부분 현재 거주 평수보다는 작은 규모를 선호하였다. 오찬욱, 이연숙(1992)에 따르면 넓은 주택의 유지관리가 신체적, 경제적으로 힘들고 행동 반경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될수록 더 작은 평수의 주택으로 거주하려는 성향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노인이 되어 혼자 또는 부부가 거주한다고 해서 반드시 작은 공간을 선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소득이 높을수록 넓은 평수를 원하기도 하는 측면(박희진, 양세화, 오찬욱, 2003)에 있어서 현재의 생활 특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 보이기도 한다.

반면,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 보인 경향은 조사 당시에 사회적 제약이나 각 개인의 정보 부재 등으로 인해 앞으로의 노인 주거 환경을 계획하는데 바로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재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3. 연구방법 및 대상

본 연구의 고유한 방법은 실제 가능한 앞으로의 주거 변화의 정보들을 연구 대상자에게 제공하고, 연구자의 생각을 유도하지 않고 그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양적인 연구보다는 노인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질적인 방법에 부합되는 연구방법이다.

3.1 연구방법 및 분석방법

연구방법으로는 소집단 워크샵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특정 주제에 대해 소집단이 모여 단계별로 토의하게 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의식을 보다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⁷⁾ 이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상황에 따른 노인들의 주거환경 선호를 보다 심층적인 토의를 통해 얻어내고자 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노인들의 주거에 대한 선호와 새로운 노인주택들이 제시되었을 때 노인들

의 잠재적인 선호를 각각 파악하기 위해 단계별로 진행이 필요하였다. 워크샵을 통해 얻어진 자료의 분석은 질적분석과 양적분석을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하였다.

3.2 워크샵 대상자 선정

워크샵 대상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60~75세의 건강한 노인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본 연구가 상황설정에 따른 노인의 주거 선호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가장 많고, 주거 이동의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서울로 한정하였다. 또한 노인은 건강에 따라서 주거에 대한 선호의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시내의 S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워크샵 그룹을 구성하였다. 한 그룹은 5명으로 구성하였고, 총 3그룹의 소집단 워크샵을 각각 실시하였다.

3.3 워크샵 실시 및 진행 내용

소집단 워크샵은 2007년 4월에 실시되었으며 <그림1>, 진행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각 집단별 평균 3시간이었다. 연구원 1인이 주도하여 진행하였고, 나머지 2인은 워크샵에 참여하여 토의 내용을 기록하였다. 토의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체 진행을 녹음한 후 전사하였다. 진행은 각 단계마다 참여자에게 질문지를 나누어 주고 토의하게 하였다. 참여자의 적극적인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구조적 질문지와 반구조적 질문지를 동시에 사용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진자료 및 이미지를 제시하고 설명하였다.



a) 1집단 a) 2집단 a) 3집단
그림 1. 워크샵 진행 장면

워크샵 진행 내용은 <표2>과 같이 1단계에서는 참여자의 일반 사항과 현재 거주하는 생활 및 주택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였다. 2단계에서는 상황설정에 따른 주거 선호를 조사하였다. 여기에서 상황은 부부동거상태와 건강상태에 따라 부부동거/건강시, 부부동거/건강악화시, 혼자거주/건강시, 혼자거주/건강악화시로 구분하였다. 먼저 각 상황을 설명해주고, 각각의 처한 상황에 따라 주거환경 선호에 대해 파악하였다. 3단계에서는 참여자에게 다양한 유형의 노인용 주택과 노인용 주택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 종류에 대해 소개하였고, 2단계와 마찬가지로 참여자의 상황별 노인용 주택에 대한 선호를 최종적으로 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주택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대해 소개한 후 노인들의 주거환경 선호에 대해 파악하였다.

5) 김태일(1995). 유료노인주거시설의 계획조건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6) 홍형욱, 지은영(2002). 사회계층별 노인생활지원주택에 대한 태도와 선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 이연숙(1995). 미래주택과 공유공간. 경춘사

표 2. 워크샵 진행 흐름도 및 단계별 조사 내용

1단계 현재 거주하는 생활 및 주택에 대한 실태 조사			
질문내용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앞으로 생활 계획에 대한 의식조사 현재 및 앞으로 생활비 부담 방법 생활에서 걱정되는 상황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하고 있는 주택 유형 및 규모 주택에 대한 만족도 거주하는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 	
2단계 상황설정에 따른 주거 선호			
조건	4가지에 대한 상황 설정	동거/건강시 독거/건강시	동거/건강약화시 독거/건강약화시
질문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계획 선호하는 주거 유형 선호하는 거주 지역 선호하는 주택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호하는 동거형태 선호하는 기혼자녀와의 거리 자녀가족의 방문 횟수 	
3단계 다양한 노인주택 소개 후 상황별 주거 선호			
설명 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유형의 노인용 주택에 대한 소개 노인용 주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소개 		
토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 의사 조사 선호하는 주택유형 선호하는 제공 서비스 		
4 단계 주택내의 디지털 테크놀로지 적용가능성 소개 후 주거선호			
설명 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디지털 테크놀로지 적용 서비스 및 제품 소개 		
토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주택에 적용되었을 때 선호하는 제공 서비스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주택에 적용되었을 때 주거 선호 		

그림 2. 3단계 워크샵 설명 도구

3.4 워크샵 설명 도구

노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도구로써 사진 자료를 제시하였으며, 구두로 설명하였다. 3단계에서 사용된 설명 도구는 <그림2>와 같다. 조사 대상자에게 다양한 유형의

노인주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삽화와 실제 노인용 주택의 실내·외4r 사진 자료를 제시하였으며 보여준 이미지는 약 70장이다.

4단계에서 사용된 설명 도구는 <그림3>과 같다. 주택 내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적용되었을 때에 제공 서비스를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분리하였고, 그에 따른 다양한 장면 및 사진 자료를 제시하였으며 사용한 이미지는 약 30장이다.

분류	설명 도구		
디지털 테크놀로지	실내환경 관리 친밀관계 유지 교육·문화생활지원	실시간 건강 체크 일상생활 지원 원격 의료제공	주거 안전관리 위급상황 감지 위급상황 알림
대표적 이미지 예제	 친밀관계유지	 일상생활 지원	 주거 안전관리
	 원격 의료 제공	 실시간 건강 체크	 위급상황 감지 및 알림

그림 3. 4단계 워크샵 설명 도구

4. 분석 및 결과

4.1 대상자의 일반 사항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은 <표3>과 같다. 남성은 6명, 여성은 9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동거가족은 부부만 거주하는 경우(7명)가 가장 많았으며, 부부와 미혼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3명), 혼자 거주하는 경우(2명) 등이 있었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은 단독주택 4명, 아파트 4명, 연립주택 3명, 다세대 3명, 상가주택 1명이었다. 학력은 고졸이상이 8명이었으며, 월 평균수입은 100~150만원이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50~100만원이 4명이었다.⁸⁾

4.2 현재 거주하는 생활 및 주택에 대한 실태 조사

현재 거주하는 생활 및 주택에 관한 실태 조사결과는 <표4>과 같다. 생활의 만족도는 대부분이 만족하거나 보통이었고, 앞으로의 생활 계획에 대한 대비의식은 비교적 높았지만 구체적으로 미래 생활을 계획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현재 및 미래의 생활비 부담에서 본인 스스로 책

- 조사대상자의 수입을 보면 저중산층이라 할 수 있으나, 은퇴 후 노인의 경우 소득계층을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차후 인구 경제학적인 차원에서 계층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있어야 하며, 이 논문에서 계층을 논하기에는 무리이다.
- 이연숙의 3인, 노인주택의 개념과 유형화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2007
- 이 그림은 이연숙(1993년)이 노인주거에 대한 연구 선호를 연구해 오는 과정에서 설문을 통해서 물었을 때 의미전달이 잘 되지 않아 근본적인 자료를 분석하는데 오류가 있다는 경험에 입각하여 응답자들에게 보다 쉽게 노인주거의 가능성을 소개하기 위하여 신동우 화백에게 의뢰하여 커뮤니케이션용으로 개발된 이미지이다. 한국형 노인주택 연구(이연숙, 1993)에 그래픽 전문이 있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그룹	나이	성별	학력	결혼 상태	월평균 수입(만원)	동거가족	직업	주택형태	주택 소유	
A	1	62	남	고졸	기혼	50~100	부부만	×	단독주택	자가
	2	69	남	중졸이하	기혼	150~200	부부+미혼자녀(1)	×	다세대	자가
	3	69	여	중졸이하	사별	50~100	혼자거주	×	다세대	월세
	4	72	여	중졸	기혼	50~100	부부만	×	아파트	자가
	5	63	여	중졸이하	기혼	100~150	부부만	○	연립주택	자가
B	6	70	남	대졸이상	기혼	150~200	부부+기혼자녀	×	단독주택	자가
	7	64	남	고졸	사별	100~150	혼자+자녀+어머니	×	다세대	자가
	8	73	남	대졸이상	사별	100~150	혼자	×	연립주택	월세
	9	69	남	고졸	기혼	100~150	부부+기혼자녀	×	아파트	자가
	10	61	여	중졸이하	기혼	100~150	부부	×	단독주택	전세
C	11	59	여	대졸이상	기혼	150~200	부부	×	단독주택	자가
	12	65	여	대졸이상	기혼	400이상	부부	×	상가주택	자가
	13	67	여	중졸이하	기혼	50~100	본인+미혼자녀	×	연립주택	자가
	14	68	여	중졸	기혼	100~150	부부	×	아파트	자가
	15	64	여	고졸	사별	100~150	혼자+미혼자녀(2)	○	아파트	전세

임진다고 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고, 자녀들에 대한 의존도는 낮았다. 이는 노인의 경제력 성장 및 부양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앞으로의 생활비 부담 방법은 현재와 거의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활에서 가장 걱정하는 요인이 건강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에 만족도는 생활 만족도와 비슷하였고, 생활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주택에 대한 만족도 및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변 환경과 주택의 여건이 생활의 만족도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불만족 원인으로서는 주택이 너무 오래되었다거나, 주택이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았다.

표 4. 생활 및 주택에 대한 만족도

내용	의견 및 응답자 수	N=15	
생활 만족도	아주 만족	1 보통	7
	만족	5 불만족	1
미래생활 계획대비	구체적으로 생각	1 가끔 생각	6
	생각만 많이 해보았음	5 없음	3
현재 생활비부담	본인	6 자녀들 공동 부담	1
	사회보장제도(연금등) 본인과 자녀	5 한 자녀 부담	1
미래 생활비부담 선호방법	본인	6 자녀들 공동 부담	1
	사회보장제도(연금등) 본인과 자녀	5 한 자녀 부담	1
미래걱정 요인	건강악화	7 할 일이 없는 것	2
	경제적인 문제	5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고독	1
주택만족도	아주 만족	1 보통	6
	만족	5 불만족	2
주택불만족	주택이 너무 오래됨	4 주택이 사용하기 불편	4
주변환경 만족도	만족	8 불만족	1
	보통	6 아주 불만족	1
주변환경 불만족	주거환경이 안전하지 않음	1 여가 문화생활 이용 어려움	1
	서비스 이용이 어려움	2 이웃과 교류가 어려움	2
	주거환경이 쾌적하지 않음	3 교통 불편	1

4.3 상황설정에 따른 주거 선호

1) 앞으로의 거주계획

앞으로의 거주계획에 대한 경우, 참여자들은 건강할 때에는 대부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그대로 살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는 현재 국내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aging in place 개념¹¹⁾을 따라가고 있는 추세로 볼 수 있다. 그러

나 건강이 악화될 경우,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현재의 주택에서 사는 것과, 간병인을 두고 계속 사는 것, 자녀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요양원에 가겠다는 응답을 하였다. 거주계획에 관한 대표적 의견은 <표5>와 같다.

표 5. 거주계획에 관한 대표적 의견

사례12	‘저도 한집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살았죠. 계속해서 살 것 같아요.’
사례4	‘현재 주택에 끝까지 살면서 자식이 사람 사서 간병하게 하려구요.’
사례10	‘나는 가고 싶지는 않은데 정 아프면 그래도 자식한테 가지 말고 노인요양시설에 가는 게 좋지요.’
사례11	‘최악의 경우에, 둘 다 팔다리 못 쓸 때 요양시설에 가야죠.’
사례 13	‘아프게 된다면 자녀한테 가고 싶어요.’
사례 8	‘노인요양주거지에 살다가 안 되면 노인요양시설로 가고 거동할 수 없을 때는 숨 안 쉬는 방법을 해야죠.’

2) 선호하는 주거 유형

대부분의 노년기에는 조사대상자 15명중에 6명이 단독주택, 6명이 고층아파트를 선호하였다<표6>. 이는 오찬옥(1993)의 노년기 상황설정에 따른 노인주거특성에 대한 선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는 이유로는 선행연구결과와 비슷하게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이 주택관리나 각종 서비스 제공 등 아파트 생활의 편리함을 상당히 중시하기 때문인 것¹²⁾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합으로 살게 되면 다른 입주자들과의 사회적인 교류도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의 선호하는 주거유형은 현재 그들이 거주하는 곳과 연관이 있으며, 이는 ‘자신의 집에 그대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호하는 주거유형에 관한 대표적 의견은 <표6>과 같다.

표 6. 선호하는 주거유형에 관한 대표적 의견

사례 6	‘전 지금 사는 곳이 좋아요. 상황이 변해도 단독 주택이 좋아요. 아파트는 토끼장 같고 단독주택은 대문 앞에 의자도 놓구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쉬기도 하고.’
사례 14	‘저는 아파트 사니깐 편안해요... 저는 계속 아파트에 살 겁니다.’
사례 8	‘저는 연립이나, 저층 아파트 살고 싶어요. 아무래도 연립이나 아파트 같은데서 살면 사람들하고 접촉이 있잖아요.’
사례 3	‘저는 연립주택도 좋은 것 같아요. 특히 혼자일 때 혹은 아플 때. 연립주택은 작으니까 관리비가 적게 나오잖아요.’

응답자 수 n=15)

선호주거 유형	단독주택	고층 아파트	저층 아파트	연립 주택빌라	다세대 (다가구)	관계없다.	합계
빈도(명)	6	6	0	2	0	1	15

- 11) 유엔의 권고안(2002)에 따르면 Aging in Place 개념은 노인이 오랫동안 거주해온 친근한 지역사회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이 개념은 치매 환자나 일반 노인성 환자가 중상의 악화에 따라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한 지역에서 머물면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연속적인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12) 김태일(1995). 유료노인주거시설의 계획주거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3) 선호하는 거주 지역

조사대상자 15명중에 7명이 도심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도심지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7>. 이는 이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도심이며, 이미 사회적 관계망이 도심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심지에서 문화 시설 및 각종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 혜택을 더 많이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전원에서 사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 고향에 대한 향수와 건강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이유로 들었다. 도시 근교지를 선호하는 경우, 선행연구결과와 같이 비교적 쾌적한 환경과 각종시설에 대한 편리한 이용가능을 들었으며, 특히 도심생활의 삭막함과 거주환경을 비판하였다. 선호하는 거주 지역에 대한 대표적 의견은 <표7>과 같다.

표 7. 선호하는 거주 지역에 관한 대표적 의견

사례15 '굉장히 불편하고, 늙을수록 도심에서 살아야 해요 건강할 땐 무조건 도심이요 아플 땐 요양시설이 좋구. 문화시설, 의료혜택, 교회(종교), 교통, 모임 가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떨어져 있으면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고 소외되기 때문에 일단 북적거리는 곳이 좋아요'

사례 1 '고향에서 살고 싶어요. 공기도 맑구.'

사례13 저는 도심에서 조금 약간 벗어난 것에서 살고 싶어요 공기도 안 좋지만 너무 사람들이 삭막한 것 같아요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고 문화시설이 잘 되어 있다면 그리 가고 싶어요 '

응답자 수 n=15(명)

선호거주지역	도심지	도시근교지	전원지	관계없다.	합계
빈도(명)	7	3	3	2	15

4) 선호하는 주택 규모

대상자들이 건강할 때는 30-35평 미만을, 건강 악화시에는 20-25평 미만의 주택규모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의 선행연구결과보다 약간 큰 주택규모를 선호하였다. 건강 악화시에는 더 작은 규모를 선호하였는데 이는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주택의 유지관리의 부담으로 인한 것이다. 한편, 자녀가족들의 방문을 염두에 두어서 더 큰 규모의 주택을 선호하는 대상자가 있었다. 선호하는 주택규모에 관한 대표적 의견은 <표8>과 같다.

표 8. 선호하는 주택규모에 관한 대표적 의견

사례11 '건강할 때는 30~35평, 건강악화 때는 20~25평.'

사례14 '25평. 어떤 때는 청소하기도 귀찮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사례 6 '지금 50평 가깝게 되고 다 써요. 애들이 주말에도 오니깐 내가 장남이니깐 행사 있을 때도 모여. 작은 집 가면 곤란해. 커야해.'

5) 선호하는 동거형태

모든 상황에 있어서 혼자/부부끼리 사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다. 대상자들이 대부분 혼자/부부끼리 사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는 자녀가족과의 갈등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다. 또한 건강 악화시에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따로 사는 것을 선호하기도 하였다. 한편 건강할때부터 현재의 집에서 끝까지 살다가 혼자가 되면 주변의

친구와 살면서 서로 의지하기를 원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에 간병인을 고용하여 혼자 살거나, 자녀들에게 의지하기를 원하였다. 선호하는 동거형태에 관한 대표적 의견은 <표9>와 같다.

표 9. 선호하는 동거형태에 관한 대표적 의견

사례 8 '혼자 사는 게 편초 자식이 같이 살겠다고? 굉장히 갈등이 생겨요 우선 건강이 좋으면 괜찮은데. 건강이 나빠서 애들한테 누가 될까 싶어서, 그게 짤 걱정이죠.'

사례 4 '주변의 친구와 함께 살고 싶기도 하구. 혼자되면 친구들과 같이 사는 것도 좋구.'

사례 7 '여전히 가족과는 살고 싶다. 지금 단독으로 살고 싶지만 건강이 나빠지면 자식한테 가야죠.'

6) 선호하는 기혼자녀와의 거리 및 방문횟수

같은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은 자녀들과 따로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선호하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도,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에 의지하면서 응급 시와 때에 따라 방문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빨리 올 수 있는 거리를 선호하였다.

방문횟수는 각각의 상황마다 자녀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방문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다. 건강할 경우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방문을 선호하기도 하였으나, 건강이 악화되었을 경우, 더욱 자주 방문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한편, 건강이 악화되어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잦은 방문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선호하는 기혼자녀와의 거리 및 방문횟수에 관한 대표적 의견은 <표10>과 같다.

표 10. 선호하는 기혼자녀와의 거리 및 방문횟수에 관한 대표적 의견

기혼자녀와의 거리
사례11 '위급하면 병원에 119 빨라서 그렇겠지만. 자식 부르는게 더 늦을 것이다. 같은 동네 있고 같은 단지에 있다고 하면 빨리 올 수 있겠죠.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사례7 '전화해서 금방 올 수 있는 거리.'

방문 횟수
사례 6 '1주일에 한두 번 (그게 좋죠). 주말에 시끄러운 게 좋아요. 안 오면 보고 싶고, 좋아하죠. 부적부적 하지만 좋아요.'

사례11 '아프면 안 왔음 좋겠어. 한 달에 한두 번. 건강할 때는 오히려 자주 보는 게 좋은데 건강하지 않을 땐 안보고 싶어'

4.4 다양한 노인주택 소개 후 주거 선호에 대한 변화

1) 대상자들의 노인주택에 대한 반응 및 거주 의사
노인주택에 대한 반응 및 거주의사는 <표11>과 같다.

표 11. 노인주택에 대한 반응 및 거주 의사

사례 8 '언제 실현 가능한가요?'

사례 4 '저렇게 잘 지어서 잘 되어있다고 하면 다 가요. 왜냐면 노인들끼리 의지하고 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거든요.'

사례 13 '지금은 당장은 가고 싶지 않네요. 70살 넘어서 정리가 필요할 때, 아플 것에 대비해서 가고 싶어요.'

사례 8 '그냥 살던데서 끝까지 살고 싶어요.'

모든 대상자들은 다양한 노인주택에 대해서 호감을 보였으나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건강한 경우에는 자신이 거주하던 곳에서 살기를 희망했다. 반면, 건강하지 않을 경우 소개한 노인주택으로 이주할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2단계에서 건강악화시 과반수의 대상자가 노인요양시설로 이주할 것이라는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한편, 노인주택 소개 후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선호가 변화했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높은 선호는 기존에 그들이 알고 있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나온 결과라고 파악되며, 다양한 노인 주택을 알게 된 후 대상자들의 주거 선호는 <표12>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시설보다는 주거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했다.

표 12. 거주계획에 대한 선호 변화

구분	A					B					C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건강시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건강악화	b1	a	a	a	b2	a	b1	b1	a	b1	b1	b1	c	b1	b1
건강시	d1	a	a	d2	a	d1	d4	d5	a	d4	a	a	a	d3	a
건강악화	d1	d2	d5	d2	d3	d3	b1	d5	d3	b2	d3	d3	d3	d3	d3

a: aging in place / b1: 전문요양시설 / b2: 노인용실버타운 / c: 자녀와 동거
d1: 노인단독주택 / d2: 노인집합주택 / d3: 공용사용주택 / d4: 약세서리주택
d5: 연속적 보호체계형 노인촌

2) 선호하는 노인 주택 유형

전반적으로 노인계획주택에서 노인이 간병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지원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그 중에서 선호하는 주택 유형은 <표12>같이 공용사용 주택인 그룹홈(d3)과 노인집합주택(d2)이었다. 대상자들은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심리적·사회적 측면과 간병인을 공동으로 쓸 수 있다는 경제적 측면에서 그룹홈을 선호하였다. 반면, 노인집합주택(d2)은 공동체 의식이 약하며 인간미가 없다고 하여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시설의 편의성 및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데 긍정적인 의견도 나타났다. 선호하는 노인 주택 유형에 대한 대표적 의견은 <표13>과 같다.

표 13. 선호하는 노인 주택 유형에 대한 대표적 의견

- 사례 1 '웰만클 몸이 불편한사람도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고 남의 도움을 안 받더라도 - 노인단독주택(d1)선호의견
- 사례 4 '한 큰 건물 안에서 병원도 있고 그런데가 좋은데..아파트같이, 운동도하고 단지가 큰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집은 작어도 단지는 커야 노인네들 한 바퀴씩 돌기도하고' - 노인집합주택(d2)선호의견
- 사례 8 '독거 노인입장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입장이니깐 그래서 저가 급격적이며 비상시 체크 할 수 있는 서로가 지나가다 노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런 걸 원한다. - 공용사용주택(d3)선호
- 사례14 '가족적이고 소규모여서 이게 더 돈독하고 유대관계가 있어서 저는 요양시설보다 그룹홈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확실하지 않고 더 인간적인 것 같아요 건강하든 안하든' - 공용사용주택(d3)선호

3) 선호하는 제공 서비스

노인용 주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선호하는 서비스

는 <표14>과 같다. 노인에게는 건강할 때나 악화될 때,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시에는 문화 및 여가시설, 소일거리에 대한 서비스를 더 선호하여 사회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건강 악화시에는 가사를 보조하거나 간호 및 간병 서비스를 선호하였는데 이는 aging in place의 개념으로 자신의 집에서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싶다는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표16>과 같이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aging in place에 대한 주거 선호가 높아져서 주거 선호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다.

표 14. 선호하는 서비스

분류	건강시	건강악화시
선호 순위	1. 의료 서비스	1. 의료 서비스
	2. 오락 집회 서비스	2. 가사일 보조서비스
	3. 일자리 알선서비스	3. 간호간병 서비스

4.5 디지털 테크놀로지 서비스 소개 후 주거선호에 대한 변화

여러 가지 디지털 서비스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서비스는 실시간 건강체크 서비스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건강악화라는 4.2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로봇과 실내 환경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제시하자 건강할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였으나, 건강이 악화될 경우에는 aging in place를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여 주거 선호의 변화를 보였다<표16>. 또한 가족이나 친구등과의 친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디지털 액자에 대한 선호도 높게 나타났다. 몇몇의 대상자는 디지털 액자나 화상통화가 가능하면 굳이 자식과 동거하거나 가깝게 살지 않아도 될 것이라 답하여 주거 선호의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디지털 액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한 대표적 의견은 다음 <표15>와 같다.

표 15. 선호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표적 의견

분류	의견
실시간 건강체크	사례3 '건강이 최고죠 노인네들이니까. 일상적으로 체크하는 것 그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사례15 '욕실에서 붙잡으면 자동으로 혈압체크하고 이러면 너무 좋아요'
일상 생활지원	사례 6 '내가 몸이 아플 때 청소도 리모컨으로 하고 좋죠' 사례 8 '전부 그런 센서나 어떤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받으면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득병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친밀관계 유지	사례 10 '화상폰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면 자녀와의 거리는 상관 없이 없을 것 같은데요.' 사례 7 '영상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 천지 차이죠'

표 16. 서비스 소개 후 aging in place에 대한 주거선호 변화

구분	제안 전	제안 후
일반 서비스	5명	12명
디지털 서비스	5명	10명

5. 종합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현재 우리사회의 노인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의 노인들과는 달리 많은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가치관과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전체 하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연구의 방법으로 노인들의 주거 선호에 대한 응답이 이들이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점을 중요시 하여 질적연구방법인 소집단을 대상으로 워크숍 형태로 계획하였다. 또한 노인 주거의 형태가 다양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계획이 얼마든지 창의적일 수 있다는 점과 디지털 기술이 보편화됨에 따라 앞으로 영향이 적지 않게 영향을 끼친다는 점 등등 어떤 정보를 가지느냐에 따라 응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였다. 이는 미래를 위한 주거 계획을 할 때, 이런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응답을 파악하지 않고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한계집내에서 조사를 한다면 미래 계획을 하는데 상당한 오류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 다른 어떤 정보도 주지 않고 기존의 정보내에서 주거 선호를 물었을 때와 다양한 주거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서 물었을 때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 다양한 노인을 위한 주거 대안을 제시했을 때, 대상자들이 선호가 대안이 없을 때 생각했던 시설에서 주거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러 가지 주거 대안 중에 공용사용주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주거 환경에서 해결하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둘째, 노인계획주택에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시하였을 때, 이와 같은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자신의 집에서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여서 주거 선호의 변화가 보였다.

셋째, 일상생활 및 건강을 지원하는 디지털 테크놀로지 서비스를 제안하였을 때, 건강악화시 노인이 독립적으로 현재 거주지에서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다. 이는 디지털 정보화 사회의 변화로 인하여 가치관과 생활양식이 변한 현재의 노인들이 디지털 서비스를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며,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삶의 도구미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인 주거 선호에 관한 본 연구는 소규모 어떤 일반화를 위한 것이 아니다. 노인의 주거 선호가 어떻게 조사를 하였느냐에 따라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 그 계획이 역동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노인주거선호를 연구하는 방법이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련의 심층적인 질적 연구방법이 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것을 근거로 궁극적으로 설문문의 구조가 체계적으로 잡힐 수 있는 시점에서 설문조사가 확대됨으로써 실제 우리나라 한국에 노인들이 요구하는 주거 선호에 대해 일반화 할 수 있는 연구들이 후속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김동배(1999). 미래사회와 노인이자 활동. 노인복지정책연구총서

2. 김태일(1995). 유료노인주거시설의 계획조건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3. 김혜연, 김성희(1999). 노인의 부양유형 선호와 영향요인

4. 고흥룡(1990). 노인을 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계획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 권오정(2005). 예비노인층의 실버타운에 대한 선호경향,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6. 박근형, 양우현(1996). 노인을 위한 도시공동주택의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7. 박희진, 양세화, 오찬옥(2003). 노인시설의 단위주거에 대한 요구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8. 신영숙(1998). 중년층이 선호하는 미래노인주거환경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9. 신화경(2003). 예비여성노인의 노후생활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0. 오찬옥, 이연숙(1993). 노년기의 상향설정에 따른 노인주거특성에 대한 선호. 대한건축학회논문

11. 오찬옥, 이연숙(1992). 노년기 주거욕구 파악을 위한 하위상향 설정기준, 한국노년학회 학회지

12. 이연숙, 신화경 외. 실증적 관점에서 본 삼대가족 아파트 개발의 타당성. 한국주거학회지. 1992

13. 이연숙. 한국형 노인주택 연구. 경춘사. 1993

14. 이연숙. 미래주택과 공유공간. 경춘사. 1995

15. 이연숙. 실내환경심리행태론. 연세대학교출판부. 1998

16. 이연숙. 한국인의 삶과 미래주택.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17. 이선미(1995). 이상적인 아파트 실내공간에 대한 심적지도의 내용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18. 정종대(2006). 친환경 주거단지의 계획과 평가. (주)한국학술정보

19. 지은영, 고정자(1997). 연령계층별 노인주거환경에 대한 선호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20. 홍형욱, 지은영(2002). 사회계층별 노인생활지원주택에 대한 태도와 선호. 한국가정관리학회지집

21. Frank, Jacquelyn Beth(2002). The paradox of aging in place in assisted living. Westport, Conn. : Bergin & Garvey.

22. Golant, S. M.(1986). Subjective Housing Assessment by the Elderly; A Critical Information Source for Planning and Program Evaluation. The Gerontologist, 26(2)